

2006년도 안전점검 결과 분석 요약(上)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무료로 하고 있다. 본 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6년에 실시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한 『2006 안전점검 결과분석』 내용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두 번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편집자주)

1. 분석 근거·목적 및 대상

가.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7조
- 점검업무처리규정 제25조

나. 목적

- 특수건물¹⁾의 일반현황 파악
- 특수건물의 잠재위험 파악
- 방화시설의 설치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의 효과 측정
- 국가 소방방재 대책 수립에 필요한 건의



1) 특수건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 병원, 호텔 및 콘도, 공연장, 방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



다. 대상

- 일반사항 : 2006년도(2006. 1. 1~2006. 12. 31)
현재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 20,823건
- 방재사항 : 2006년도(2006. 1. 1~2006. 12. 31)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20,354건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특수
건물은 제외)

2. 주요 분석 결과

가. 특수건물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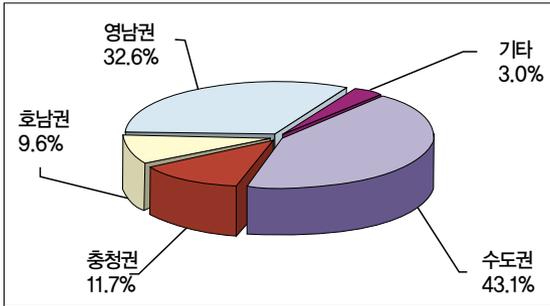
(1) 분석대상 특수건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규정
된 전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로서, 특수건
물 대상건수는 2005년도 19,686건에서 20,823건으
로 5.5%(1,137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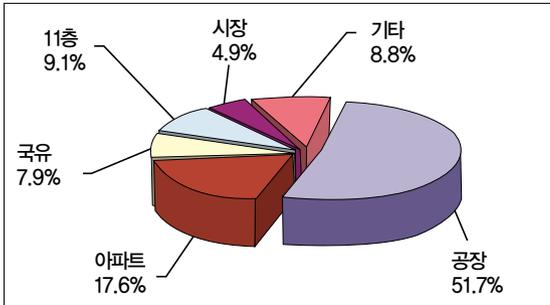
(2) 특수건물 분포

특수건물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및 영남권이 대부
분으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이 8,978건으로
전체의 43.1%이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의 영남권이 6,796건(32.6%), 대전 등 충청권은
2,434건(11.7%), 광주 등 호남권은 2,002건(9.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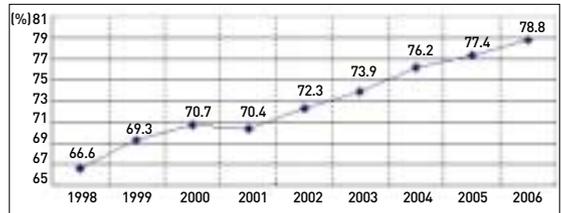
특수건물의 업종으로는 공장이 51.7%(10,759건)이
며 아파트가 17.6%(3,672건), 국유건물이
7.9%(1,589건)로서 3개 주요 업종이 점유하는 비율
이 전체 특수건물의 77.2%이다.



● 도표 1 • 지역별 특수건물 현황



● 도표 2 • 업종별 특수건물 현황



● 도표 3 • 연도별 특수건물 방화시설 양호율

나. 특수건물 잠재위험

특수건물의 잠재위험은 연기피해, 화재 및 수손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붕괴, 도난 및 자연재해 위험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는 시장,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국유건물과 주거 및 사무실, 학교 등의 일반 건물이 낮았다.

다. 특수건물 방재사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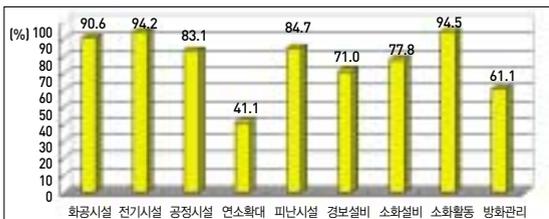
2006년 중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1) 특수건물 전체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78.8%로서 전년도(77.4%)대비 1.4%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기 시설, 연소확대 방지시설, 피난시설, 소화활동설비 및 방화관리 양호율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방화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94.5%) 및 전기 시설(94.2%), 화공시설(9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방화관리는 각각 41.1%, 61.1%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소방 기술의 발전과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건물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예방활동 지도강화로 시설자체의 양호율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물 규모가 대형화 · 고층화 · 복합화 및 심층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연소확대 방지시설의 양호율 저조는 유사시 대형재해로 발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방화관리 양호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건물소유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고정적인 방화시설의 투자보다 건물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인적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화재안전을 위한 소유자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투자와 방화관리자의 교육·훈련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도표 4 ● 방화시설별 특수건물 양호율

(3) 특수건물의 업종별 양호율은 아파트(93.2%), 11층 이상 건물(86.1%), 학원(85.4%)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음식점(64.1%), 시장 용도의 건물(73.6%)

은 낮은 양호율을 보였다. 음식점 및 시장의 양호율이 낮은 것은 건물용도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고 업태가 고객위주의 영업활동 목적에 치중하여 원활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연성물질의 다량 적재 등으로 화재화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적정 피난 대책과 소방대책 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손실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



● 도표 5 ● 업종별 특수건물 양호율

(다음호에 계속)

